

코로나19 재확산, 대면 시험 불만 이어져

학생과 교수 소통 창구 필요, 기자재 및 프리웨어 제공 고려해야

지난 23일, 본교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학기 기말고사에서 대면 시험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기말고사는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시험이 필요한 과목의 경우 해당 교수의 재량으로 16주차(12월 15일~21일)에 진행할 수 있다.

학사운영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말고사에서 대면 시험을 진행하는 과목은 전체 1,335개 중 157개(11.8%)다. 나머지 과목은 실시간 온라인 시험(728개, 54.5%)이나, 과제 등 기타 방식(450개, 33.7%)으로 기말고사를 진행한다. 대면 시험을 가장 많이 보는 대학은 IT공과대학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대면 시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함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일 때, 전면 비대면 시험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16주차 전면 비대면 시험 진행을 배제할 수 없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교수가 학생과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채 시험 방식을 대면 시험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본지 566호 온라인 중간고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중간고사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학생들은 '시험 공지 및 교수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50.7%)를 꼽았다.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학과 학생회는 학생의 의견을 모아 대면 시험을 진행하는 과목에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학생회는 학내 커뮤니티에 입장을 올리고, 교수진과 직접 만나는 등 해당 수업에 접촉을 시도했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과 IT공과대학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교수진이 요구를 받아들여 시험 진행 방식을 바꾸는 경우도 나왔다. 경영학부에서 대면 시험으로 진행될 강좌는 27개였다. 11월 23일, 총 72개의 시험 강좌 모두 비대면 시험으로 결정됐다.

곽동우(경영 3) 경영학부 학생회장은 "이번 경영학부 전면 비대면 시험 전환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며 "교수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학생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면 시험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거나, 프리웨어 등을 이용해 비대면 시험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경영학부 '시장조사론' 과목의 경우, 해당 교수가 기말고사를 과제로 대체하기 위해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SPSS프로그램 체험판 설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학교 실습실 대신 집에 있는 PC를 활용해 시험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결과다.

본교는 2020학년도 내내 비대면 시험과 대면 시험을 병행해 기말고사를 진행했다. 학생회가 의견을 모아 전달하거나, 교수진이 스스로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바꾸는 등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과 교수와의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조윤철(학사운영팀) 팀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면 시험을 강요해 학생의 우려가 일어난다면, 본부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며, "교수와 학습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학사협의회와 같은 모임에서 충분히 교육을 제공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2021학년도 총선거 마무리, 7개 기구 학생대표 선출돼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학생자치기구의 총선거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상상력인재학부 등 7개 중앙기구 모두 당선됐다.

제 36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EASY'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이경택(컴공 3) 총학생회장 후보와 지승빈(IT 2) 부총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2,168표(60.55%)를 득표해 당선됐다. 재적인원 6,048명 중 3,580명(59.19%)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경택 당선자는 "학생의 편에서 서서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 37대 총대의원회 개표 결과, '파란' 선본의 차원식(스마트 3) 정의장 후보와 유영선(IT 3) 부의장 후보가 찬성 43표(78.18%)를

얻어 각각 정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선거에는 대의원 64명 중 55명(85.93%)이 투표에 참여했다. 차원식 당선자는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총대의원회를 만들겠다"며 당선 소감을 전했다.

제 38대 학생복지위원회 선거에서는 '바다' 선본의 정해솔(스마트 3) 정위원장 후보와 조진웅(컴공 2) 부위원장 후보가 찬성 2,124표(65.69%)를 득표해 당선됐다. 재적인원 6,048명 중 3,233명(53.45%)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해솔 당선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심적으로 지친 학우를 위로할 수 있는 학복위가 되겠다"고 말했다.

제 35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는 'ONLY' 선본이 찬성 427표(56.4%)의 득표로 당선됐다. 동아리 재적인원 1,218명 중 757명(62.15%)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제 25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는 개표 결과, '운유' 선본이 찬성 455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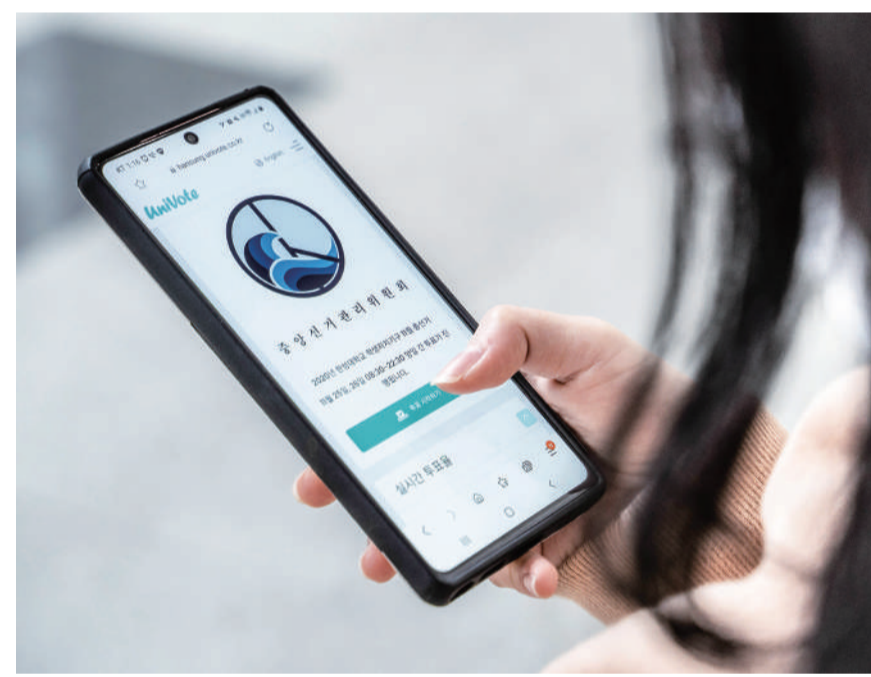
(57.3%)로 당선됐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재적인원 1,466명 중 794명(54.16%)이 표를 행사했다.

제 5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선거에서는 기호 1번 '공감' 선본 189표(27.7%), 기호 2번 '시너지' 선본 160표(23.4%), 기호 3번 '단비' 선본 164표(24%)로 '공감' 선본이 당선됐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재적인원 1,155명 중 681(58.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제 5대 상상력인재학부 선거에서는 'BLOOM' 선본이 찬성 116표(76.82%)를 얻어 당선됐다. 상상력인재학부 재적인원 257명 중 151명(58.75%)이 투표에 참여했다.


IT공과대학 학생회와 디자인대학 학생회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내년 3월에 재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 'EASY' 총학생회와 '파란' 총대의원회 인터뷰는 3면에서 계속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 참여대상** 일반 국민(국내 거주자)
- 신고방법** 보호원 불법복제를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상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보호원에서 제공하는 신고도구를 통한 제출자료 제출 및 불법복제물 신고
- 신고기간** 공익신고제 운영기간은 ~12월 11일까지
- 신고대상**
 - (국내 비공개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 게시물) 카페, 블로그, 밴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들만 접근 가능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말하며, 단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이트들은 제외함
 -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해외 현지어 사이트) 불법으로 한류콘텐츠를 유통하는 해외 현지어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 신고활동 지원비** 사이트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우수자 대상 지원비 지급

지원구분	인원	지원금액	선정방법	선정시기
최우수상	3명	10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외부전문가 참여 심사 및 평가	'20.12.
우수상	18명	5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장려상	30명	3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 우수자 선정평가 기준은 신고량, 신고내용의 중요도, 신고 사이트 수량 등을 종합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인원수가 변경될 수 있음
 ※ 보호원에서 우수신고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액에 따라 별도의 제세공과금(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호원으로 개인부담금 납부 후 지원활동비 지급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2020 대학본부 코로나19 대처 '미흡'

등록금 대처·소통·제한적 대면수업은 불만족, 시험 진행·방역은 만족

한성대신문사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대학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학생의 답은 불만족이었다. 학생이 매긴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5점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등록금 문제 대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1,012명의 재학생이 참여했다. 본부의 대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 외에, ▲등록금 문제 대처 ▲소통 ▲대면수업 진행 ▲방역 및 확산방지 대책 ▲시험 진행 등 5개 문항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등록금 문제 대처

등록금 및 실험·실습비 반환 이뤄져야

등록금 문제 대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5%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한성희망장학금 지급 방식이 부적절했다(61.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부의 등록금 문제 대처는 지난 1학기부터 계속 논란이 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대학은 대부분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학생은 2주 개강 연기, 학교 시설 사용 불가, 낮은 온라인 강의 품질 등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과 실습·실기비 환불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는 3월 19일 진행된 1차 정기간담회에서 등록금 환불 여부를 물었다. 본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광현 기획처장은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 논의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학생대표는 4월 17일에 진행된 2차 정기간담회에서도 등록금 환불에 대해 언급했다. 본부는 1차 정기간담회에서 입장을 바꿔 장학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는 6월 5일 등록금 반환 대신 장학금을 재학생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한성희망장학금 모금 운동과 예산 절감을 통해 모든 재학생에게 20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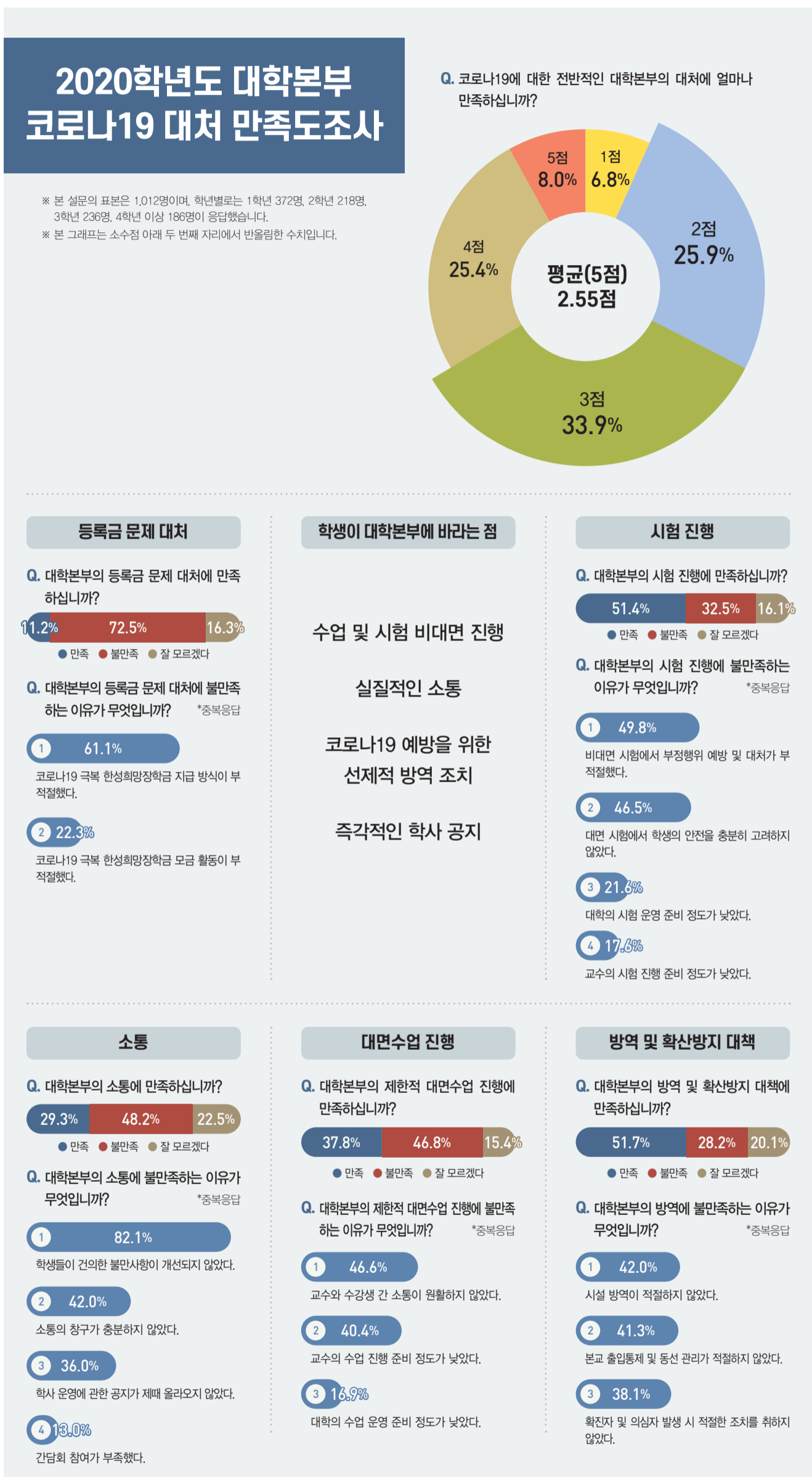
학생은 등록금 환불 대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성대신문 557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난장학금 조건부 지급 방안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1.5%가 아니라고 답했다.

등록금 문제는 소송으로 번졌다. 지난 7월 1일 본교 재학생 256명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진행하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했다. 학생대표는 8월 31일 진행된 5차 정기간담회에서 학교의 입장을 물었다. 최천근 학생처장은 "소송 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급 및 등록금 환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공개하기로 했던 1학기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은 빠른 장학금 지급 결정은 좋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적었다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개인별로 장학금 지급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2학기에는 장학금을 취약층에에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실습·실기비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학생은 "실습·실습비를 납부한 학생 중 실습을 하지 못한 학생도 많은데 실습비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교는 하반기 등록금 및 실험·실습비 반환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 처장은 "하반기는 전체적인 수업 시수도 늘었고, 실험·실습 운영 및 관련 기자재비 제공도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1학기



2021 총학·총대, 코로나19 어떻게 대처할까

총학생회 EASY

“변하는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것”

Q. 올 한해 제35대 총학생회 ‘한결’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대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한결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학우의 입장에서 볼 때, 한결의 대응이 미숙하게 보였을 수 있다.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결과 학우의 입장 모두 이해된다. EASY는 올해 아쉬웠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보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한 학우의 건의사항을 분부 측에 전달해 보다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Q. 한결과 학생 간의 소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올해 한결은 학우와의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원활한 소통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불안한 학우가 많았고, 결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한결에 반감을 갖기도 했다. EASY는 학내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의 소통 비중을 줄일 예정이다. 에브리타임은 익명이라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대신 인스타그램과 한성청원을 적극 활용해 학우와 소통할 것이다. 한성청원은 학생이 학교에 바로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 초에 개설할 계획이다.

Q. EASY가 계획하고 있는 2021학년도 행사는 무엇인가?

A. 코로나19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직 내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진 않다. 다만 2021학년도 학사운영에 초점을 맞춰 행사를 계획할 예정이다. 2학기 온라인 대동제는 나쁘지 않았다. 많은 학우가 오프라인에서 참여할 순 없었지만, 비대면 상황에 맞는 구성이었다. 내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다 많은 학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할 생각이다.

Q. 7차에 거쳐 진행된 정기간담회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나?

A. 학우의 의견은 학교에 잘 전달



▲제36대 총학생회장 이경택(좌)과 부총학생회장 지승빈(우) 신혜림 기자 hyerm126@hansung.ac.kr

총학생회 EASY 주요 공약

- 등록금 심의 위원회 과정 공유
-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 원활한 소통 약속
- 학생 복지 개선
- 학생회 운영방식 체계 개선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쉽다. 등록금, 강의 방식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과 각 학부(과) 및 트랙 특성에 맞는 학우의 건의사항까지 본교에 전달하고 해결할 생각이다. 정기간담회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도 꾸준히 실시할 생각이다.

Q.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EASY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인가?

A. 학우의 안전, 학우와의 원활한 소통이다. EASY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우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학교의 입장을 학우에게 빠르게 전달하겠다.

신혜림 기자

총대의원회 파란

“흔들림 없이 총대 운영할 것”

Q. 올 한해 제36대 총대의원회 ‘청량’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청량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대부분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음에도 진행이 원활했다. 학생회칙, 감사 시행 세칙, 선거 시행 세칙에서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개정했다.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었다. 다만 한 번에 모든 개정이 이뤄져 학우가 혼란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파란은 놓친 부분을 찾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Q. 청량이 진행한 온라인 대의원총회는 어떻게 평가하나?

A. 2020학년도 상반기에는 상임위원과 대의원을 구성하지 못해 대의원총회가 진행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대의원을 구성하지 못해 정기총회가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대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오프라인 진행에 비해 아쉬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안이었다고 생각한다.

Q. 파란은 대의원총회를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가?

A.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반기, 하반기 모두 상임위원과 대의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확산 정도가 심해졌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와 대의원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예산 인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만약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청량과 동일하게 웹엑스를 이용할 생각이다.

Q. 2021학년도 온라인 총선거는 어떻게 평가하나?

A. 올해 총선거는 온라인으로 치러진 첫 번째 총선거였다. 처음이었지만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오프라인 선거보다, 많은 학우가 선거 기간을 알지 못해 아쉽다. 파란은 본교 게시판인 낙산의 메아리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활용해 선거를 홍보할 생각이다.



총대의원회 파란 주요 공약

- 대의원 역할 강조
- 대의원총회, 상임위원회 일정 공개
- 통합 온라인 투표 진행
-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 감사 OT 분기별 진행
- 예산안 회의 결과 항목별 공개

Q. 파란은 온라인 선거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A. 파란은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석회의는 과회장과 트랙장 선발 시 후보의 서류를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Q.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파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인가?

A. 코로나19 여부와 관계 없이 6가지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파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우에게 신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혜림 기자

hyerm126@hansung.ac.kr

교내 서버 디도스 공격받아 접속 장애 겪어

지난 11월 20일 오전 11시 50분, 본교 홈페이지와 e-class가 DDoS(분산 서비스 거부)이하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 장애에 빠졌다. 대학 본부는 오후 1~2시까지 이어진 디도스 공격을 외부 서비스를 통해 방어했다.

디도스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내부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 외부에서 교내 서비스 접속이 불가했다. 디도스 공격이란 다수의 좀비 PC를 통해 특정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는 정보량을 한꺼번에 보내는 공격이다. 서버가 처리 가능한 용량보다 많은 정보를

받으면 부하를 이기지 못하고 다운된다. 이용자들은 서버가 다운되면 서버에 정상 접속할 수 없다.

본교는 지난 2018년 F5 네트워크에 웹 방화벽과 디도스 방어 장비를 구매했다. 둘 다 디도스 공격을 막지 못했다. 유영기(정보화팀) 과장은 “디도스 공격은 다양한 형태로 유입된다”며 “병목현상으로 인해 내부 장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서버 손상이나 데이터 손상 등의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면서 외부 접속을 차단하는 중 일부

학생이 e-class 실시간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본부는 출결 문제를 교수 재량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학 본부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출결 문제는 처리 방침이 없다”며 “추후 접속 장애로 인한 출결 매뉴얼을 만들어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유 과장은 “향후 신종 및 변종 디도스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교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현구 기자 pizzadragonheart@hotmail.com

본교 홈페이지 구축 사업 진행

본교가 2021년 3월까지 ‘한성대 학교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오류 사항 점검, 구성원 의견수렴, 입찰 및 업체선정, 홈페이지 개발, 테스트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업체 선정 단계에 있다. 사업 진행은 정보화팀, 홍보팀, 경영기획팀, 평가지원팀으로 구성된 TF팀에서 맡았다. 새로운 홈페이지 오픈은 3월로 예정돼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새로운 홈페이지에는 ▲반응형 웹 기반 홈페이지 ▲통합검색엔진 ▲다양한 콘텐츠 제공 ▲메뉴

직관성 개선 ▲디자인 개편 등이 구현될 예정이다. 반응형 웹 기반 홈페이지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한다. 통합검색엔진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본교는 홈페이지에서 한성이슈 및 대표 SNS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UI는 대학의 특색을 살리며 디자인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바뀔 예정이다.

앞서 홍보팀은 지난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성대학교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내구성원의 요구사항으로 ‘홈페이지 메뉴 구성의 간결함’, ‘최신 UI 반영’, ‘통합검색 기능 정확도 향상’ 등이 있다. 본교가 밝힌 홈페이지 구상안은 설문조사를 반영한 결과다.

김준호(홍보팀) 팀원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홈페이지 사용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우 기자 rldjrtf@naver.com



▲지난 11월 18일, 본교 미래관과 공학관에 위치한 ‘창의열람실’과 ‘상상파크 플러스’의 개관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원 총장과 대학본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창의열람실은 팀프로젝트를 위한 Co-working 공간과 오픈스터디 공간을 제공한다. 상상파크 플러스는 소모임 공간과 AI·빅데이터 실습실로 이뤄져있다. 이 총장은 “창의열람실과 상상파크 플러스가 창의융합 활동을 증진시키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rldjrtf@naver.com

2학기 긴급경제곤란 지원 장학금 지급 예정

오는 9일, ‘긴급경제곤란 지원 장학금’(이하 긴급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본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127명을 선발해, 약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소득구간 8구간 이하 ▲우선적·선별적 선발 기준 충족 등이다. 우선적 선발 기준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경제부양자)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충족되며,

선별적 선발 기준은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경우 충족된다. 긴급장학금 신청은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명근(학생장학팀) 팀원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긴급장학금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학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162명 등이다. 우선적 선발 기준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경제부양자)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충족되며,

신혜림 기자 hyerm126@hansung.ac.kr

‘제14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시상식 열려

지난 11월 23일, 미래관 DLC에서 ‘제14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이하 프레젠테이션 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에는 본선에 진출한 6팀이 참석했으며,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이 수여됐다.

프레젠테이션 대회는 사전에 공지되는 주제를 토대로 학생들의 발표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성차별과 세대 갈등 극복을 위한 의사소통, 집콕 문화, 뉴노멀을 주제로 진행됐다. 예선은 선착순으로 참가한 23팀이

각 팀별로 7분 정도의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예선을 통과한 6팀은 본선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심사위원은 사고와표현과정 전임교수 3인과 위촉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됐다. 심사기준은 ▲설득력 ▲창의성 ▲슬라이드 구성 능력 ▲전달 방법 ▲발표 태도 등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남가빈(IT 1) 학생은 “이 상을 계기로 모든 일에 끈기를 갖고 도전하는 법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 학습권 침해 논란에 종지부 찍을까

지난 11월 9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 입법이 예고됐다.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하 대학등록금규칙)에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기능 및 운영 ▲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 및 장학금 확충 산식 ▲ 초과학기 학생의 등록금 징수액 기준 완화 ▲ 등록금 징수기일, 납부연기 금액 및 절차 완화 ▲ 학기 중 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근거 신설 등이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논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월 20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대학등록금규칙과 고등교육법의 내용을 똑같이 맞춰 법 해석의 혼란을 막는데 주력했다.

현재 학생의 학습권 침해 논란은 소송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지난 5월, 전국 42개 대학생 3,500여 명이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사립대는 100만 원, 국공립대는 50만 원 어치의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6월 20일에는 본교 총학생회 ‘한결’을 비롯한 전국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가 국회·정부에 상반기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했다. 이후 7월 1일 본교 학생 256명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했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개정 전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후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학생의 사유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와 재난으로 감면한 액수의 합이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면제·감액 사유에 경제적 어려움 포함돼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은 기존 대학등록금규칙 중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에서 모호한 표현을 수정했다. 기존 제3조제1항3호는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미가 다소 모호했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학생의 사유’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학생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진 경우가 등록금의 면제·감면 사유로 명확하게 인정된 것이다.

등록금 면제·감액 범위를 다룬 제2항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라는 표현 외에 ‘재난으로 감면한’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재난이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로 간접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 중 천재지변에 관한



등록금 면제·감면 시 천재지변 및 재난 고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면제·감면 논의 가능해
대학·학생 간의 평등한 소통 필요



▲지난 6월 15일 위와 동일한 행사에서 전국 30여 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교육부 앞을 행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앞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행진 선포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항을 명확히 하고, 대학의 경제 사정 곤란 장학금 확충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입법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된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에 대해 연덕원(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어 등록금 감면이 필요한 학생의 처지와 더불어 대학의 재정 상황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에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경제 사정 곤란 장학금 지급에 대한 대학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 전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후

① (위와 동일)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등록금 면제·감액 규모를 정할 때에는 등심위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등심위에서 면제·감액 규모 논의 가능해져

개정되는 내용에는 등록금 면제·감액뿐 아니라 등심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등심위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등심위는 학생, 교직원, 동문,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 교내 각 구성단위 대표 7인 이상이 수업료와 등록금 등의 납부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이다. 기존 등심위는 등록금 면제·감액 등을 정할 때 대학본부가 제시한 면제·감액 규모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바뀐 후에는 제시할 규모 자체를 논의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1항에 ‘등록금 면제·감액 규모를 정

할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각에서는 등심위에 참여하는 관련 전문가도 중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 연구원은 “관련 전문가는 학교에서 추천해서 선출하고 있는데, 학생이 전문가 선출에 관여하면 등록금 산출 시 내용을 학생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통 활성화로 내부 갈등 조정해야

이번 개정을 두고 학생 측과 대학 측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학생 측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연 연구원은 “학생의 처지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며 “등심위 내 공정한 논의장을 형성하고 학생 및 대학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실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학 측은 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학생의 상황만을 고려한다고 지적한다. 황인성(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급격한 상황 변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사립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4대 요건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4대 요건은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이다. 황 처장은 “등심위에서 대학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등록금 조정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명확한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 제시, 등심위의 원활한 운영 도모, 장학금 확충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 해소 등을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안의 입법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학과 학생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연 연구원은 “등록금 반환 및 감면에 대한 학생의 불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등심위에서 학생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평등한 자리에서 서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35회 한성문학상

시 부문

수 상 | 민가영(인문 1)
심 사 | 문태준 시인
삼 화 | 임혜인(CT 4)

소설 부문

수 상 | 김태은(CT 1)
심 사 | 김동환(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문학문화콘텐츠) 교수
삼 화 | 강동희(CT 3)



시 부문 당선작



꿈

민가영

전 판타지를 꿈꿔요
사슴의 뿔에 꽃이 자라고
나무는 신성이 깃들고
종달새가 소식을 전하고
나의 머리카락은 빛이 나고
바람은 귀에 속삭이고
하늘은 제비꽃색으로 물들고
정돈되지 않은 숲길을 맨발로 달리고
스치는 꽃들이 나의 안부를 묻고
입을 열고 선율로 답하는
그런 판타지를 꿈꿔요.

시 부문 심사평

올해로 제 35회를 맞이한 한성문학상 시 부문 응모작들을 꼼꼼하게 읽었다. 개성적인 목소리의 작품들이 많았다. 시적 관심사, 발성의 방식, 형식 등이 개별 작품마다 상이했다. 시적 모티프가 지나치게 사념적인 것에 머물러 있거나 시적 진술의 내용이 모호한 작품들도 꽤 있어서 아쉬웠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싶다. 마지막까지 검토한 작품은 「혼자말」, 「순정」, 「꿈,이였다」. 각각의 응모자들이 이 작품들과 함께 보내온 작품들도 고른 수준이었다. 「혼자말」은 시적 화자의 심연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읽혔다. 그리고 그 심연은 심해, 밀폐된 방, 어둠 등과 같은 시어를 통해 대체로 집착이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달을 맞이하며/ 어둠과 함께 입을 여는 꽃이 있대」와 같은 시구는 내면의 암울한 상황에서조차 개화도와 같은 희망과 절정의 순간을 찾으려는 강한 의욕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비유적 표현 또한 빼어났다. 다만 이 시에서 「뵈는 게 없는 시간을 사랑하는 누군가」라든지 「소리 내지 못하게 한 이」와 같은 시행은 그것이 지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다소 불분명했다. 「순정」은 단순한 구조의 짧은 시였고, 이해가 어렵지 않았다. 「나/너」의 관계를 「구름/바람」, 「순/흙」에 견준 대목도 신선했다. 다른 시에서도 보여주는 서정적인 시구들의 장점을 앞으로 잘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 고심한 끝에 수상작은 「꿈」으로 결정했다.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갖고 있는 꿈의 내용을 드러낸다. 그것을 판타지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꿈의 목록 가운데 시적인 상상력에 기초한 것들이 꽤 포함되어 있다. 가령 「나무는 신성이 깃들고」, 「정돈되지 않은 숲길을 맨발로 달리고」, 「스치는 꽃들이 나의 안부를 묻고」와 같은 대목들이 그것들이다. 특히 숲의 왕성한 생명력과 그 원시성을 「정돈되지 않은」이라는 시구로 표현한 대목은 돋보이는 성취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감각과 상상력을 잘 살려내는 작품들을 앞으로 많이 창작하길 기대한다. 제35회 한성문학상 현상 공모전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원고를 보내온 모든 학생들에게도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문태준 시인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 시집으로 <수련거리의 뒤란>, <맨발>, <가재미>, <그들의 발발>,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이 있음. 노작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동서문학상, 유심작품상, 목월문학상 등 수상.

시 부문 수상소감



민가영(인문 1)

상을 받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갑작스레 온 수상 문자가 제 무딘 일상에 화려한 폭죽처럼 날아왔습니다. 잠결에 확인한 문자가 그저 꿈 인줄 알았던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제가 써왔던 여러 시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며 반짝거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게 시는 일상이었습니다. 색다른 감정이 느껴지거나, 평소와는 남다른 꿈을 꾸거나, 마음이 편안한 날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쓴 이 '꿈'이라는 시는 항상 늦잠을 자던 제가 어느 날 새벽 6시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 낙산공원으로 산책을 갔을 때 지은 시입니다. 흠뻑 땀 도는 낙산공원에서 저는 엉망진장인 벽의

낙서를 찍고, 나무에 가려진 표지판도 찍고, 풀잎에 맺힌 이슬도 찍으며 새벽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이 숲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시로 담은 것이 이 '꿈'이라는 시였습니다. 요즘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의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말로 하지 않더라도 사람과의 눈 맞춤에서 마음의 형클어짐이 보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힘든 현실을 피해 상상의 구름 속에 숨는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끄적였던 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 제 자신을 다시 정의하게 했습니다. 저는 소심하고 나약한 유리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보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다루기 힘든 다양한 감정들을 다른 방식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이 상이 다음 도전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이 기회를 발판삼아 또 어떤 새로운 정의를 해나갈까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응원해주는 나의 가족들에게 애정과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보잘 것 없는 내 곁에 묵묵히 있어주는 나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영원을 약속하며 글을 마칩니다.

소설 부문 당선작

하수구에 애인이 흘러들어갔다

김태은



애인이 하수구에 떠내려갔다.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들어갔다.

아, 웬지 오늘따라 운수가 좋았다. 출근길에 만 원짜리를 줍질 않나, 아침 지옥철에 타니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앞자리가 비질 않나, 내친김에 사원증을 찍기 전 편의점에서 즉석복권을 긁었고 이만 원이 됐다. 우연이 종종 겹쳐 되도 않는 행복에 겨웠는지, 공돈을 써버리겠다며 배스 밤을 사 온 게 화근이었는데도 모른다. 너도 오랜만에 좋은 향기 좀 맡으라며 냉장고에서 애인을 따라 꺼내놓은 건 본인이었으니까.

그렇다. 다시 말하지만, 변명이 아니라 진짜 실수였는데, 얼룩덜룩한 욕조에서 나오다가 덜 씻긴 비누기에 오른발이 미끄러지고 만 것이다. 순식간에 조명등이 눈앞을 핵 지나갔고, 닿지 않는 손을 허공에 허둥지둥 짚는 중 단발머리를 지를 새도 없이 세면대에 올려놓은 애인이 넘어졌다. 쟁그랑 깨지는 소리가 귓가를 찢어놓아 고개를 돌려야 했는데 천장이 보였고, 욕조 옆구리에 부딪친 머리통이 알싸하게 아팠다. 머리라도 깨지는 소리였으면 좀 나았을 텐데, 직감적으로 지현은 그 소리를 눈치채고 말았다.

고통에 신음하며 굳어있는 그 사이에 애인은 까만 구멍으로 흘러내려갔다. 손으로 그러길 수 있었던 양은 고작 손가락에 몇 방울 남은 것 정도였다. 먹이를 포식한 육식동물처럼 하수구 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다. 아직 저녁 인사도 못 했는데, 낭패감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왔다. 흠이 났는지 평한 머리에서 배수구 구멍 사이사이의 머리카락을 치운 지 오래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흘러내려버린 애인과 엉겨있는 머리카락 탓에 눈물이 질질 났다.

세한 기운이 엄습했다. 그게 무언지 몹시 잘 알고 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면 좋아. 익숙한 마음이 바다처럼 차오른다.

지현은 익사하는 물고기처럼 과거 어딘가에 의식을 넣어두고는 잠시 눈을 감는다. 손바닥에 유리 조각이 박힌 건 금방이라도 있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곧 지현은 알몸으로 유리조각 위에 엎어져 소리 내 영영 울었다.

그게 고작 한 시간 전, 10월 31일의 이지현이 샐리에서 감점자로 전락한 전말이다.

인생 최초의 기억부터 당장 어저께까지, 마르지 않는 바다나 물바람 일으키며 쏟아지는 폭포는 지현에게 있어 그림이나 사진 속에만 있는 존재였다. 알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늘상 그렇게 말했을 때 예시로 들어지는 것들, 계곡에 발을 담그는 일도, 호수로 낚시를 가는 일도, 그 속에 손가락을 뻗어 담갔을 때의 물 비린내도 지현은 모르고, 하다못해 민물과 바닷물의 차이도 마음으로는 정리하지 못했다. 바다는 짜, 그리고 민물에는 가재가 살아, 어쩌면 새우도 살 수도 있고, 어항 안의 금붕어가 바다를 모르듯이 지현 또한 물, 많은 물에 대해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그다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지현에게, 바다소리가 집 밖에서 바로 들리는 곳에서 자랐다는 그는 처음으로 지현이 만난 물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분기마다, 계절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바다에 다녀오는 사람이며, 피부에서 물의 냄새보다 물 냄새가 나는 것 같은, 피부호흡을 할 것 같은 사람이었다. 꼭 스물하나의 여름, 우연히 같은 교양을 듣게 된, 열은 물빛 가디건 끝자락을 팔락이며 여기 앉지도 되느냐 묻던, 조금 옛된 사람.

“욕조보다 많은 물은 본 적이 없어.”
“진짜?”

정말 놀랍다는 듯 그가 커다란 눈을 깜빡였다. 원체 그런 일이 없는 목소리가 높게 튀어 올랐다.

“궁금한 적 없어?”
“딱히 막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머쓱하게 머리카락을 배배 꼬아대며 지현이 대답했다. 탈색과 염색을 몇 번 거쳐 간 단발머리가 푸석푸석하게 하늘로 뻗어 있었다. 뿌리 근처가 까맣게 올라와 있다. 나는 물 엄청 좋아하는데, 왜, 수영을 좋아해서? 아니 그냥 물이 좋아서, 왜? 몰라, 전생에 고래 같은 거

였나? 너 하는 거 보면 고래는 아니고 멸치쯤일 것 같아. 놀리려고 했던 말에도 그는 전혀 굴하지 않았다. 멸치도 나쁜진 않아. 아몬드랑 간장이랑 해서 볶으면 맛있잖아. 얼씨구. 헛소리에도 능청을 피우는 통에 지현이 흑갈빛 나는 부드러운 머리통을 째렸다. 눈썹이 파기웠던 듯 그가 지현과 시선을 맞추었다. 지현아,

“바다 보러 갈래?”
“네가 보고 싶은 거구나?”
“껏도 그런데.”
“근데?”
“지구의 반 이상이 물이잖아.”

그럼, 그걸 못 보고 사는 건 인생을 반 정도 낭비하는 거 아닐까? 무슨 퀘변이야. 어이가 없어서 지현은 무릎을 모아 그 위로 턱을 괴어버린다. 표정은 보이지 않아도 뚱하게 굳어있을 것이다. 동그랗게 웅그린 걸 보면 그만 말을 걸만도 한데, 이거 보라며 그가 직접 찍은 바다 사진을 들이치는 통에 기분이 좀 상한 것도 같았다. 뒷주머니에 넣어놓은 핸드폰에서 진동이 세 번쯤 울린 걸 느꼈지만 굳이 꺼내지 않는다. 보이지 않아도 곧장 집으로 오라는 문자였다. 눈만 굴러 바라본 손바닥만 한 화면 속 바다는 파스한 회빛인데 홀로서 있는 그가 유난히 추위 보였다. 목도리를 칭칭 매어놓은 뒷모습인데도 그랬다.

창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괜히 지현의 코가 발갈게 얼어들어갔다. 지현의 앞에 쪼그려 앉더니 그가 목소리를 내어 이름을 불렀다. 당황이 딱딱딱 묻어 목소리가 머뭇거리고 있었다.

“울어?”
“아니.”

눈가에 손가락이 닿아 있다. 그가 살짝 힘을 주어 지현의 눈물샘 근처를 푹푹 누르듯 했다. 눈물이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면 좋을 텐데, 그저, 지현은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속삭이듯 되뇌인다.

“너도 가만 보면 되게 이상해.”
“내가?”
“응.”

어디가 그렇게 이상한데? 스무 살 언저리 먹었는데 위로하는 법도 서툴기 그지없다는 거? 지현은 웃음 섞인 한숨을 뱉으며 무릎을 내렸다. 인간사가 다들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지현은 유별나게 타인에게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찾는 게 훨씬 빠르다고 느끼곤 했다. 스스로 정의 내리길 평균점을 많이 벗어난 사람이었던 탓이었다. 바라던 바는 아니고, 타고나길 그렇게 자랐다. 그러나 그 앞에서는 그냥, 둘 다 이상한 사람이라 그걸로 족한 것 같았다.

지현은 그의 모친이 마흔이 넘어 겨우 가진 외동 딸인데, 다르게 말해보면 세 번의 유산과 한 번의 사고를 겪고 아이를 네 번 잃은 모친에게 찾아온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모친은 십여 년을 아이가 있을 팔자가 아니려니 하며 매일매일을 눈물과 후회 바람으로 살았는데, 덜컥 지현이 찾아들었다고 버릇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가끔 지현이 제 고막 언저리에는 귀한 딸, 눈썹 언저리에는 얼음조각, 그렇게 글자라도 박혀있는 건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다.

미지근한 무릎에 머리를 맡기고 머리를 골라주는 손길 속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지현의 태몽은 몹시 기묘했다. 추위 죽겠다며 벌벌 떠는 아이 목소리가 들려 모친이 복숭아 나무 밑에 온통 불을 질렀는데, 몽땅 시꺼멓게 타버린 밭에서 유일하게 타지 않은 빨간 복숭아가 있어 그걸 한입에 삼켰단다. 그러자 달큰하게 향내 풍기던 복숭아가 삼시간에 녹더니 봄벌처럼 파스하게 몸에 기운이 돌아 잠을 잤다고.

예사로운 꿈이 아니구나 싶어, 조심스러운 시기가 지났다고 들은 날 모친은 당장 용한 점집에 사주를 보러 갔다. 별소리도 하질 않았는데 무당이 말하길, 들어왔던 아이 팔자가 불과 같아서 물과 만나면 사고라든다고, 평생 물하고는 수절하며 살라고 했다. 한두 군데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열일곱 곳에서 그

러니 별수 없게, 아쩔 수 없게, 지현은 물을 모르게 자랐다. 그리 강인하던 모친도 많이 불안했구나. 그리 인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부터 이미 당연시하고 있었다. 나약한 인간이 기묘한 것에 곧잘 홀리곤 하듯이, 응당 의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것이다.

불만이 있었다, 떠올려봐도 기억이 엉겨버린 듯 생각나지 않는다. 숨을 고르며 지현은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했다.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에는 티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해졌다.

지현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좋아한다는 그, 울지 않는 척을 하는 나와 나에게 우느냐고 묻는 그, 피어싱이 아홉 개나 박혀있는 지현의 귀와 달리 흉터 하나 없이 깔끔한 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의 귀 끝이 살짝 불그스름하게 끝이 물들어 있는 탓일 수도 있다, 지현이 뺄지 못한 것들을 대신 내뿜기라도 할 것 같은 색이다. 속눈썹이 망울망울 젖어 있었다. 손가락을 더듬어 지현은 그의 귀 끝을 슬금 짚어본다. 여기에 피어싱 하면 예뻐겠다. 그러자 말갈게 그가 웃었다. 어젯죽지를 넘겨가는 생머리가 창 너머로 들어온 바람에 실랑거렸다. 샴푸 냄새가 시리게 났다.

“네가 그게 좋으면 똥을.”
“내가 하라라고 무조건 하면 어떡해.”
“나 원래 좆대가 없잖아.”

후드집업 소매 안에 넣어놓은 손안으로 그가 꼬물거리며 손가락을 끼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도드라진, 유별나게 서늘한 손이었다. 고개를 다시 들면 그가 무슨 표정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현은 목 안이 간지러운 것 같아 들어 바라보지 못했다. 목 소리가 참 좋구나, 자각했던 순간이 있었다. 동그란 눈이나 붓숭아 빛 도는 입술 말고, 숨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허하게 해서 발밑이 뚫렸나 걸논질로 확인하는 게 지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였다.

이제 와 상기해보면 그는 가끔 팔뚝 근처며 청바지 아래 드러난 발목에 푸른, 혹은 노란 멍을 달고 나타났다. 오래되거나 오래되지 않은 상처일 것이었다. 어딜 그렇게 부딪혔나 물으면 아니라며 물에 들어간 지 너무 오래해서 그래. 하고 묘한 소리를 했다. 너 한 번씩 그렇게 모를 소리 하더라. 그런가, 그가 천천히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겼다. 반짝거리는 피어싱이 부어 오른 귀에 박혀있는 게 기억에 깊게 남아 있다.

두 번째 여름방학이 끝난 날 그는 페트병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지현아, 이거.”
“이게 뭘데?”
“바다.”
“뭘?”
“담아왔어.”

욕조보다 더 많이 담아올 수는 없긴 했는데, 이걸 나더러 어떡하라고? 마음대로 하면 되지. 바다 냄새도 모르고 사는 건 슬프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보면 몇 달 전 얼룩덜룩하게 물들어 있던 피부가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지현은 페트병을 열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싱크대에 모수리 쏟아버렸다. 오백 밀리리터의 바다는 그렇게 하수구로 흘러내려갔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바다가 담겨 있었던 병안에서 아주 비릿하고 짭짤한 내음이 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차마 병은 버리지 못했다.

제 나름의 바다를 가지고 와 선물하는 걸로는 부족했는지 그 이후 하루에도 여러 번, 말뚝처럼 그는 바다에 가자고 권해왔다. 한 번만 같이 가달라는 애원일 때도 있었고 우스갯소리처럼 건네는 말일 때도 있었다. 자기는 패딩을 입고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그 웃긴 꼴을 보고 싶지는 않느냐고 호소했다. 웃기기가 그의 눈에만 웃겼을 것이다. 지현은 이미 그전부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 아무리 나쁘게 포장하려 해도 그의 말 끝에 곱게 리본을 묶

어놓고 말았다. 불같은 팔자라더니 마음에 불티가 한번 불으니 좀처럼 꺼질 기미를 보이지를 않았다. 사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뻐 보였을 것이다.

“겨울 바다만 걸어도 좋은데.”
“언제는 여름에 가고 싶다면?”
“너랑 가면 다 좋을 것 같아.”

내가 자란 곳을 알려주고 싶은 거라서. 비릿한 냄새가 나고 한없이 파란 곳. 그가 말하는 바다는 들을 때 사람을 흘리는 구석이 있었다. 물에 비쳐서 노랑고 파랑고 초록빛 나는 것들이 투영되면 이렇게 자국으로 남는 거야. 어느 날은 또 명 자국을 들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다. 이걸 내가 물에서 난 흔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다. 마지막은 물론 장난기 있는 웃음으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진지하진 않았다. 가을 끝자락의 어디, 낙엽 냄새가 나는 날에 근처 공원이며 골목을 걸으며 하는 흔한 수다 중 하나였다.

12월 31일의 고백은 지현 본인답지 않게 몹시 감정적으로 이루어졌다. 함께 사람이 적은 거리를 걷다가, 여자끼리 손잡는 게 뭐 대수냐고 그가 말했고 지현은 대수여서, 그게 너무 억울해서 울어버렸다. 새해를 같이 맞고 싶어서 인생 처음 엄마를 바람맞히고 나왔어. 년 뭘든지 전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몰라.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알기는 해? 됐어, 이제 말 걸지 마.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지현이 뒤로 돌아 걸으려는데 손가락 끝이 다시 맞닿았다. 곧 익숙하게 각지가 끼워졌다. 약하고 여린 힘이 지현을 잡아 이끌어 당겼다.

“내가 좋아?”
“.....”
“어디로 가 버려도 좋아할 거야?”
“.....”

갈급한 목소리는 몹시 새롭게 들렸다. 답지 않게 굴고 있어서 지현은 그게 어색했다. 마음에 대한 응대가 아니어서 그런 탓도 있었다. 그가 입술을 오물대며 대답을 종용했다. 지현아, 널 좋아해, 왜냐고 물으면 잘 몰라. 그래도 그냥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마음을 재단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나 봐.

누군가는 사랑을 인력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는 했는데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았다. 외부에서 들어온 행성은 지현으로는 어쩔 도리도 없이, 중력을 행사하고 만다. 그걸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애초에 마음에 그를 들어놓은 것도 지현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도 그러는 우주에 지현이라는 행성을 들어놓고 있었다는 것 정도다. 그래서, 그날부로 지현은 그와 연인이 되었다.

지현의 싱글 침대 위로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누워서, 천장에 붙은 야광 스티커의 수를 세었었다. 있지, 지현아.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잖아. 먼지에서 태어난 거니까 끝에는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근데 사실 나는 바다로 돌아가면 좋겠어. 너랑 내가 흠이 되면 너무 멀어서...못 만날 수도 있잖아. 못 움직이니까.

천장을 바라보던 고개를 돌려 지현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눈을 감고 입만 빠끔거리고 있다. 그렇지만 바다로 돌아가면 아주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한 번은 만날 수 있겠지. 나는 그래서 너를 바다로 데려가고 싶을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사랑한다는 말이야.”

바닷물이 담겼던 페트병은 냉장고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 한참이 지나 이제 그가 알려준 바다 내음은 대부분 사라졌다. 지현이 정의 내리기를, 바다는 아마 그와 같은 것일 것이었다. 미지의 무언가, 나를 이끌리듯 만드는 것, 그래서 나를 여상스럽게 만드는 것. 페트병의 내용물을 버린 것이 갑작스럽게 후회되도록 만드는, 흐르는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함께 보고 싶다고 그래서 혼자 찍혀 있던 그 회비 바다 앞에서 목도리를 나눠 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한달음에

지현은 그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밀물처럼 마음이 밀려들어서 호흡이 가빠왔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지현에게 바다에 가자고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단어는 연인 사이의 어떤 불문율이 된 것처럼 되어 있었다. 이제 지현은 페트병 안의 바다를 한 번이라도 손으로 만져볼 것을 생각하는 데 그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끔 혼자 어딘가에 다녀와서, 몸 구석구석에 익숙한 멍 자국을 달고 돌아올 뿐이었다. 물으면 또 대답 없이 웃기만 한다.

“지현아.”
 “왜 이렇게 다쳐오는 거야.”
 “사실 내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할래?”
 “속상해 죽겠어.”
 “바다에서 왔어, 나...”
 “...”

그럼 네가 뭐 인어라도 된다는 말이나고 지현이 쓰아붙인다. 나는 네가 이렇게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는 이유도, 네 주변 환경과 옛날 얘기도 모르고, 묻지 않으니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그는 이번에는 울 것 같이 눈을 찌푸린다.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기회의 신은 앞머리가 수북하고 뒷머리가 없는 우스꽝스러운 형태란다. 왔을 때에는 잡아챌 수 있지만 놓치면 영영 뒷모습만 바라보아야 한다. 그 순간부터는 아마 기회를 놓친 이가 가장 우스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 맞다. 지현은 아직도 그에게 왜 바다에 그리 집착하느냐 묻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사랑해서 비참해진다. 좋아해서 무서워진다. 전전긍긍하게 된다. 일상이 엉망진창으로 변한다. 모친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지현은 그가 없어질까 매일매일 무서워졌다. 그가 그리는 미래에 훗날은 없고 당장 내일만 있는 것 같아서...어쩌면 그는 말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람받음을 확인하는데 동시에 의심했다. 발목이라도 붙잡고 애원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지부레하게 내리는 비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장마철이 왔다는 뜻이었다. 배란다 창틀에 기대어 지현은 허파 그득하게 비 내음을 채워 넣었다. 그에게서도 가끔 비 냄새가 났다는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잠들어 있는 그가 깨기를 기다렸다. 물 냄새가 났던 그는 요즈음 지현과 같은 냄새가 난다. 같은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는 공통점을 찾기 더 쉬워 보일 것 같아. 8층까지 피어오른 흠과 풀냄새가 섞여서 신선한 냄새가 올라왔다.

어찌 됐든, 지현은 손을 놓지 않으면 그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누구보다 깊게 깎지를 끼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여겼다. 지금 곁에 있다는 소속감을 주면 그는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게 명확했다. 지현은 모친과 그런 식으로 살았다. 답답해서 죽을 것 같으면 그녀는 지현의 이름을 불러 호소했고, 그럼 지현은 다시금 모친 옆에 앉아 곁을 내어주었다. 잠결에 지현이 아닌 다른, 일찍이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지현은 모친의 등개를 감싸 안고 도다였었다. 서로의 비참함에 취해서 상처를 훑다 보면 언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멀리서 보면 고슴도치 둘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양새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지현은 꽃샘추위가 끝나갈 무렵 그를 집 안에 가두어 놓기로 결정했다. 애초에 그는 사람과의 교우가 적

고 지현과 유일하게 특이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이제 애원하는 쪽은 지현이 아니었고, 여전히 둘은 사랑했다.

관계는 비정상적일지라도 그래도 괜찮게 흘렀다. 체온은 익숙해졌고 몸은 잘 맞아떨어졌다. 그의 어색한 말투에 편전을 걸고 웃는 것도 부드러운 머리칼을 손가락으로 헤집듯 하는 것도 숨 쉬는 것처럼 간단하고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들은, 정확히 집어 말해 지현은 현실에서 유리된 것처럼 굴었다. 세상이 지현과 그를 보지 못하게 꼼꼼 숨으면, 그들 사이의 작은 문제들은 보이지 않을 것이니 괜찮은 해결책이라 여겼다. 그를 떠나지 못하게 막으면 멍 자국이 생길 일도 없다. 거짓말을 하게 만들 필요도 없다. 새장 속의 새처럼 그를 가두어 놓으면, 그러면... 그를 위해 가져다 놓은 해양 서적과 디큐멘터리가 나날이 쌓여 갔다. 농담조로 그가 렌탈샵을 열어도 되겠다고 중얼거릴 정도였다. 초반에는 그도 힘들어했으나 다 이해한다는 듯 괜찮아져서, 지현은 행복했다. 좋았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바다를 같이 갈까.’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바다에서 왔다는 말을 진지하게 하는 그와 바다에 가서 겨울 바다를 걷자. 어느새 불문율은 중요하지 않게 됐다. 그냥 오랜만에 그가 맑게 웃는 게 보고 싶었던 것 같다.

오랜만에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을 때, 그는 안절부절 못하고 시선을 가만두질 못했다. 어딜 가느냐고 자꾸만 물었다. 지현이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바다를 간다고 몇 번이나 일러주었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듯 굴었다. 몸을 붙잡고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가쁜 숨을 쉬었다.

평일에 휴가를 낸 터라 버스는 한산했다. 승객은 손가락을 꼽아 셀 수 있을 정도였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는 유리창에 손가락을 뻗어 어딘가를 그려주듯 잡았다가 놓기를 계속했다. 아, 지현이 탄승 비슷한 것을 낸다. 멀리 끝에, 시퍼렇게 입을 벌린 것이 보였다. 그가 담아왔던 바다가 원래 그런 것이던가, 그런 종류던가. 갑작스레 덜컥 두려워졌다. 그러나 뒤로 돌 수는 없었다.

고속버스에서 내려 시내버스로 갈아탄 뒤 정류장에서 내려서도, 그가 그렇게 바라던 겨울바다의 모래사장 도착하기까지는 한참을 더 걸어야 했다. 근처까지 와야 지현은 아, 이게 바다 비린내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고작 그가 담은 페트병으로는 정말 알 수 없는 거였구나. 불을 뿜 것처럼 찬 바람이 자꾸만 불고 있었다. 쥐 죽은 것처럼 고요한 사이에 바람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채워져 있다. 아, 파도는 저런 색이구나. 하얗게 밀려오고 부서지는 통에 시린 냄새가 코로 밀려들었다. 바다에 깔린 자갈들은 어느새 모래로 변하고 버섯처럼 신발을 파묻고 있다.

그는 천천히 옆을 향해 걸었다. 가끔 미역 따위나 조가비 깨진 껍질이 파도에 밀려 휩쓸려오면 잠깐 웃기도 했다. 지현은 왜 그가 바다를 함께 걷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아진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채워들어와도 괜찮았다. 붉게 물든 코 끝도 아리지 않았다. 그가 지현의 손을 잡아 이끌어 파도 끝에 놓았다. 쪼그려 앉은 채 밀려오는 물이 찼다.

“어때?”

“뭉가...?”
 “바다.”
 “오길 잘 했어.”

그래, 그치? 하고 그가 입꼬리를 올려 웃는다. 바다는 이런 거니까 잊지 마 지현아, 그리고...

그는 신발이 젖는 건 상관없다는 듯이 몸을 파도로 옮겼다. 지현이 웃웃 끝자락을 붙잡자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정말 잠시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느새 지현의 발은 발목 근처까지, 그의 다리는 종아리 근처까지 젖어 있다. 파도는 지현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데에 급급한데, 그는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 지현은 그에게서 바다를 빼앗을 수 있었지만 이제 와 막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았다. 그제야 울 자리를 찾았다는 듯이 그가 몸을 숙였다. 귀가 바람 때문에 웅웅거렸다. 불쾌한 기분인가? 지현은 알고 있다. 그건 정확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

“어디까지 가려고!”
 “.....”
 “...아!”
 “.....”

그는 이제 상반신이 반쯤 잠겨 있다.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더니 후후, 하고 입안으로 소리 내 웃는 것 같았다. 지현아, 내가 바다에서 왔잖아. 기억해?

“...”
 “거짓말 아니었어.”

넌 안 믿는 것 같기는 했는데, 이제는 알아도 될 것 같아. 날 데려와 줘. 큰 소리로 그가 말하고는 바닷속으로 몸을 디밀었다. 뒤로 엎어졌다고 말하는 편이 나왔던가, 지현이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거품 하나도 보이지 않게 풍덩. 그렇게 들어가 버렸다.

지현이 온몸이 젖은 채로 바다를 헤집어도 그를 찾을 수는 없었다. 지현은 핸드폰을 쥐고 구조대에 연락하려고 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벅찼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며 과호흡에 기침하는데, 저 멀리 끝에서 검은 머리가 불쑥 나타나 헤엄쳐왔다. 문득, 지느러미를 본 것 같았다.

“놀랐지.”
 “...뭉야?”
 “이제 갈 때가 됐어.”
 “어딜 가는데...?”

그는 웃음으로 응대했다.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질문이라는 듯, 그저 손가락으로 저 멀리 지평선 근처를 가리켰다. 푸른빛이 도는 지느러미는 꼭, 처음 봤을 때의 그 물뿔 가디건을 닮아 있다.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나를 좋아해 줄 거지. 왜 정말 영영 가버릴 것처럼 얘기해?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의 물뿔은 목소리는, 아마 진짜 목소리일 것은 알고 있던 목소리와는 조금 달랐다. 갈라지지 않은 청량한 목소리는 웃음기와 피곤이 잔뜩 배어 있었다. 장난치듯 꼬리지느러미로, 그가 지현의 손끝에 물을 튀겼다.

“다음에 보기는 힘들 것 같아서.”

“...”
 “지현아, 난 네 앞에서 거짓말 못해.”
 “...거짓말하지 마.”
 “아니, 정말, 한 번도 한 적 없어.”

목이 메고 시야가 흐렸다. 눈물이 젖은 걸 알면서도 그는 손을 뺐지 않는다. 아마 달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느러미로는 설 수 없으니까. 눈을 꼭꼭 눌러 눈물을 짜 줄 수는 정말 없었을 것이다. 그런 노력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그에게도 지현에게도 그랬다.

그가 지현에게 몸을 숙여달라고 나지막히 부탁했다.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지현은 순순히 허리를 숙인다. 차갑고 비린 입술이 닿는다. 얼굴을 잘 보고 싶었는데 보이지 않는다.

“안녕.”
 “...”
 “안녕이라고 말해야 가지.”
 “...안녕.”

그리고 그는 헤엄쳐 갔다. 멀리, 아주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을 그가 돌아오진 않을까 기다렸으나 그가 오는 일은 영영 없었다. 아주 영영 없었다.

아, 나는 내가 불인 줄 알았는데 아마 나무였던 거다. 사주고 뭐고 다 틀려먹었다. 불이 붙어 있는 걸 불이라 착각하고 봤던 것일 거다. 삶의 열화에 바다가 쏟아져내려 아무것도 아니게 된 장차, 그래서 바다 같은 내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라도, 정말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어쩔 수도 없을 것 같다. 돌아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물과는 영영 수절하라는 거였어. 정말 용하네. 지현은 자조적으로 웃으며 울었다. 바다를 알게 된 날 지현은 죽고 싶다는 감정을 습득했다. 삶이 불꽃이라면 이제 성냥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야만 한다. 애초에 알지 못하면 좋았을 사랑을 알아버려서는 안됐던 거다. 지현의 모친이 훔았던 걸지도 모른다.

사람의 기일은 죽은 날인데 네 기일은 언제라고 말하면 좋은가. 하다못해 그는 죽지도 않았는데 기일을 챙기는 게 맞는 도리기는 한가.

지현은 페트병 안에 바닷물을 채워 거기에 이름을 붙인다. 그 오백 미리 짜리의 바다에는 ‘.....’라는 이름이 붙었다. 연인의 이름이 붙었다. 돌아오지 않을 연인의 이름이 붙었다. 녹아 없어지듯 인어는 물속으로 돌아가 버렸고, 지현에게는 기억 외에 아무 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괴물 아니랄까 봐, 인간보다 똑했다. 마침 오늘은 12월 31일이었다. 우스운 일이었다.

기실, 지현이 찬 욕실 바다에 드러누워 눈물을 짜낸들 그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하수구에 너를 흘려보냈다고 하면 아마 웃기는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본 게 허탈한 웃음이라 맑게 웃는 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인어의 기일까지는 2개월이 남아 있다. 지현은 페트병의 인어를 모조리 하수구에 쏟아붓고 깨진 유리를 치우기 시작했다. 내일은 휴가를 내어 연인을 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하수구에 애인이 흘러들어갔고, 견잡을 수 없는 날이었다.

소설 부문 심사평

예전에 비해 응모 편수는 많지 않았지만 작품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소재와 확장된 장르들이 많아지면서 심사역 앞서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장르의식, 문제의식에 대한 깊은 사고와 정교한 플롯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시화의 거목〉, 〈구소사〉는 1차 심사역 심사자의 눈길을 끈 4편에 속했으나 각각 결말구조의 의미망, 서사적 완결성의 부족이라는 요인 때문에, 〈서울의 아프리카〉와 〈하수구에 애인이 흘러들어갔다〉에 밀렸고, 최종적으로 두 편을 앞에 놓고 장고에 들었습니다.

〈서울의 아프리카〉는 은유적으로 대비된 두 세계의 상호작용에 의한 서사적 긴장감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플롯의 묘미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비해 〈하수구에 애인이 흘러들어갔다〉는 나르키소스의 자기애(自己愛)를 긍정적으로 현현한 플롯에 기대되 소사 정보를 적절하게 아끼고 있습니다. 플

롯은 때로 음모(陰謀)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 상황이 좀더 정교하게 플롯에 녹아들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 ‘운수 좋은 날’을 슬그머니 소환해 오는 솜씨도 상당합니다. 아쉬운 점은 몇 군데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들, 실수로 보이거나 실수는 실수로 그치지 않고 때로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타의에 의해서든, 자신 스스로의 인식에 의해서든, ‘사주(四柱)’라는 말로 은유된 굴레에서 갇혀 있던 자이를 해방시켜 나가는 과정을 감각적인 문체의 힘을 통해 성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기에, 자아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키소스의 ‘호수’와 지현의 ‘바다’ 사이에 놓인 간극을 놓치지 않고 읽어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당선자의 정진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응모자 모두에게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김동환(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문학문화콘텐츠) 교수

소설 부문 수상소감



김태은(ICT 1)

당선 소식을 전해 듣고 밥을 먹다가 손가락을 툭 떨렸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배가 불러버렸기 때문이었겠지요. 소리를 지르고 집 안을 비웃는 듯하게 뛰어다니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는 여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미로 글을 쓴다고 말하고 다닌 지 3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글을 쓴 건 5년쯤 되었습니다. 글쓰기 세계에서는 행복아리도 아니고 태어나지도 않은 수정란 수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욱

값집니다. 근래 제 주변인을 포함해 사람들을 바라보면, 행복하려고 다분히 노력하거나, 지나치게 우울에 빠져있거나 합니다. 보통은 전자가 선행되고, 후자가 결과로 따라옵니다. 열등감은 마모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리는 물건이라, 삼시간에 사람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놓기 마련입니다.

미국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아시나요? 저는 그 슝스슝한 뒷맛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은 공감의 동물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불행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런 삶, 조금은 슬펐던 것, 불행한 서사는 기묘하게도 한때 불행했던 이들에게, 그리고 불행한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구의 희극이 보이지 못하는 달 뒤편의 상처 같은 것이라, 그건 정말 온전하게 미국의 영역입니다.

위로는 아주 오래 갑니다. 기억에도 마음에도 아주 오래 남습니다. 이번 당선을 계기로 제가 쓴 글이 누군가의 불행에 위로가 되기를, 많이 행복하되 어떤 불행의 순간에 가끔 어렴풋이 생각나기를 빌어봅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한양도성의 낮



▲순성 길에서 바라본 한양도성

〈편집자주〉

본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낙산 한양도성에는 '한양도성 낙산구간'이라는 이름의 순성 길이 마련되었다. 예로부터 풍광이 좋은 것으로 이름을 날린 명소답게 낙산이 보여주는 풍경은 아름답다.

밤이 되면 낙산은 순성 길에 설치된 조명과 도심의 불빛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모습을 드러낸다. 마천루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만들어낸 형형색색의 빛은 잠들지 않는 서울의 밤을 느끼게 해준다.

해화문에서 흥인지문까지 이어진 2.1km의 순성 길이 보여주는 낮과 밤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부터 감상해보자.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한양도성 낙산구간의 종착지인 흥인지문



▲도성의 역사를 담은 한양도성박물관



낮보다 아름다운 한양도성의 밤

조명과 마천루가 빛어내는 아름다운 야경



▲조명이 비치는 한양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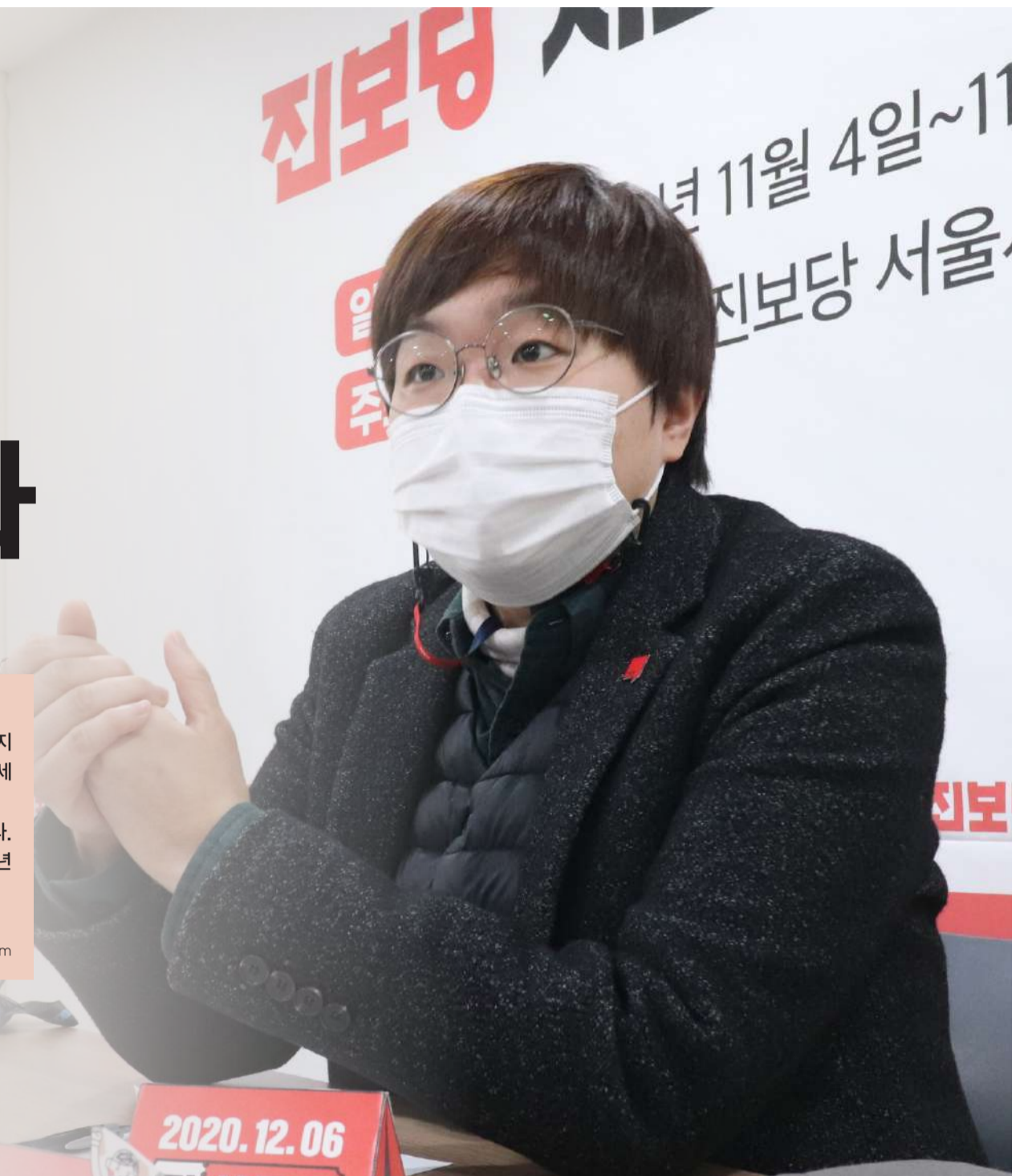


▲조명이 켜진 흥인지문공원과 흥인지문



▲한양도성 낙산구간의 시작점인 해화문

청년 정치는 일상이다



〈편집자주〉

제21대 총선에 당선된 40대 미만 정치인 수는 13명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무려 10명이나 늘어났다. 제21대 총선은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첫 선거이기도 했다.

늘어난 젊은 정치인 수와 낮아진 선거 연령으로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거나 고민해본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청년 정치인은 청년 정치를 어떻게 정의할까? 본지는 총 5번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마지막으로 만난 정치인은 진보당 공동대표이자 청년진보당 대표 송명숙이다.

박현규 기자 pizzadragonheart@hotmail.com

Q. 청년 정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지금까지는 소수의 청년만이 청년 전체에 담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모든 청년이 문제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의 문제가 청년 각자의 지역, 직업 등에 따라 세분화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져 청년 정치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

Q. 청년 정치는 일상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A. 일상 속에서 모두가 정치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정치에 대해 토론하기 조심스러운 문화를 갖고 있다. 청년이 정치를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여기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Q. 청년 정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청년 정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데 있다. 현재 20대와 30대는 우리나라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20대와 30대를 대표하는 청년 국회의원은 300명 중 12명인 4%이다. 아주 적은 청년이 모든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잘 전달하려면 모든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Q.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A. 정치 상황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21대 국회에는 12명의 청년이 있다. 청년이 국회에 들어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일부 정당에서 청년만의 독자적인 단체가 하고 있는 것 역시 긍정적이다. 현재로서는 한계도 있다. 청년 국회의원이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전달하고 있지만, 모든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지는 못한다.

Q. 청년 정치가 잘 이뤄지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A. 청년 정치가 잘 이뤄지기 위한 환경 조성에 기성 정치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실제 정당에서 당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 정치인이 청년 정치인을 육성해야 한다. 정당에서 당권이 없는 청년들은 기성 정치인의 협조 없으면 정치 경험을 쌓기 힘들다. 기성 정치인의 협조로 당 내부에 독자적인 청년 조직이 생겨야, 청년이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일부 정당은 청년 조직을 신설해 권한을 보장하고, 예산을 인준해 청년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기성 정치인의 협조로 청년이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Q. 기성 정치인은 청년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청년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청년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청년 세대가 사회의 책

임감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년은 주로 SNS로 소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성 정치인이 청년 정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Q. 청년 정치를 위해 청년 스스로 할 일은 무엇인가?

A. 청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세력을 구성하는 것이다. 3·8·6세대는 민주화를 이끌어내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치 세력으로서 단결했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 세대가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이 겪는 문제에 단결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청년이 모여서 세력을 이루고 대표를 선출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Q. 청년이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A. 청년이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청년을 이용하는 기성 정치인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성 정치인은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청년 유권자의 표를 노린 이른바 "청년 팔이"를 하고 있다. 정당의 이미지를 젊은 이미지로 바꾸고, 표를 챙기기 위해 청년을 이용한다. 기성 정치인의 행태에 지친 청년은 정치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된다. 심한 경우 정치 혐오, 정치 무관심이 생긴다.

Q. 청년이 정치를 참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A.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경제 문제다. 청년은 정치에 참여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루하루 생존에 매달리고 있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일자리 정책의 목표가 일자리 개수가 되면 안 된다. 일자리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대출 규제를 비롯한 여러 규제 주먹 문제에 시달리는 청년이 많다. 공급을 늘리고 공공 임대주택 확대에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Q.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A.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은 많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치인 지지를 여론조사에 참여하거나, 선거가 열렸을 때 투표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부분 이외에도, 청년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청년은 이에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 청년도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지난 2019년 11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청년 돌진국회로 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명숙 대표의 모습이다.

정치를 포기한다면
일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송명숙

- 2012 한국대학생문화연대 대표
- 2016 민중연합당 부대변인
- 2018 민중당 민중정책연구원
- 2019 민중당 청년 돌진국회로 특별위원장
- 2020 청년진보당 대표

· 삼 학 송 ·

변화의 기로에서

올 한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감한다. 개강연기, 온라인 강의, 그리고 비대면 시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공지와 함께 했다. 비대면 강의는 이제 낯선 표현이 아니다. 많은 대학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 교육을 고려하고 있다. 본부는 첨단 시설과 장비를 교수에게 지원해 온라인 강의를 대비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설치된 32개의 첨단강의실은 지금까지 28명의 교수가 184번 사용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지원과 품질관리를 위해 본부는 스마트원격 교육센터를 설치했다. 해당 센터는 온라인 강의 품질 제고를 위한 시설 및 교수법 등을 제공한다. 원하는 교수에 한해 블렌디드 러닝 적용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본교의 지원에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의 불만은 여전하다. 교수와의 소통이 어려워 강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학생의 의견은 지난 학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일방적 공지나 피드백 없는 과제 제시는 강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자료만 읽는 수업도 현재진행형이다.

본부가 현재 제공하는 시설만으로는 소통하는 수업을 만들기 어렵다. 본부가 설치한 첨단강의실은 자동추적 강의 녹화시스템, 강의녹화 모니터링용 모니터, 전용마이크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니터에는 학생 얼굴과 수업자료가 함께 뜨지만 교수 혼자서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의 반응을 체크하기는 어렵다.

한국교통대학교는 다중 모니터를 사용했다. 화면에는 학생의 얼굴과 토론 내용이 함께 보인다. 교수는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학생을 관찰할 수 있다. 외국 대학에서도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미네르바 대학은 모든 강의를 19명 이하의 학생이 참여하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론 참여 정도에 따라 학생 아이콘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교수는 학생의 참여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피드백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대학은 학생이 강의에 대한 건의사항을 학교가 제공하는 만족도 평가나 채널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만 고수하고 있다.

학생의 피드백과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 학생과 교수가 평가한 내용을 보면 온도차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교육부가 지난 8월, 학생 2만 8,418명과 대학교원 2,881명을 대상으로 1학기 원격수업 운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48.1%가 대학의 원격수업 준비 정도에 대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교수의 66.5%는 '콘텐츠 활용 원격수업으로 학습 목표 달성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일부 대학은 새로운 컨설팅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 계명대학교의 경우, 컨설팅을 꺼리는 교수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학기에 촬영된 수업 동영상 스피치 전문가가 평가한다. 전문가는 교수의 강의 영상을 미리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교육 방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넘어 블렌디드 강의가 새로운 지식전달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대학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우리대학 역시 첨단 시설과 장비 등을 설치하는 등 변하는 교육 방식에 맞춰 준비 중이다. 대학 교육은 시설과 장비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와 교수자를 충분히 고려한 시스템이다.

우리는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2021학년도 한성대의 모습은 크게 바뀔 것이다. 이제는 더 나은 길을 선택할 때다.

박희연 편집국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생이 붓뱀던 '지지고'와 '승리장'의 현재 모습이다. 활기찼던 예전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고, 부서진 콘크리트만이 여기에 건물이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학교에 오지 못한 20학번과 내년에 입학할 21학번은 여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수많은 기억 속에 남은 장소는 다시 찾아갈 수 없는 곳이 됐다. 최성훈 기자

■ 기자수첩

지난 3년간 학생사회는 학생회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학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학생회가 개최했던 간담회에는 학생 참석률이 0%에 가까웠다.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부담스러운 학생을 위해 만든 온라인 장구에도 건의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의 무관심에 학생회는 여운을 잃기 힘들었다. 학생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행동도 취할 수 없었다. 커뮤니티에 간간히 올라오는 글을 보면 학생회에 대한 불만만 있을 뿐 개선하기 위한 의견은 거의 없다. 제 35대 총학생회 '한결이' 당선된 후 학생과 학생회 간의 간담회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올해는 좀 달랐다. 뜻밖의 재난 상황이 학생과 학생회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 불씨를 지켜야한다

학생은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학생의 의견을 받기 위해 총학생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천 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했다. 7차에 거친 간담회, 등록금 반환을 위한 외부활동, 설문조사 등 총학생회도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총학생회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 학생의 반응으로 가득 찼다. 과거에는 총학생회가 올린 게시물에 별다른 댓글이 없었지만, 올해 들어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격려의 댓글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학생의 관심에 힘입은 학생회는 학내 갈등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이러스감염증-19 확산 이후 시험이 있을

때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는 오프라인 시험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학부(과) 및 단과대학 학생회는 대면 시험 진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다수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덕분에 학생회는 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교수를 설득할 수 있었다. 학내 커뮤니티의 반응과 높은 설문조사 참여율이 보여주듯 학생회에 대한 학생의 관심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뜨겁다. 제 36대 총학생회 'EASY'의 어깨는 매우 무겁다. 뜨거운 관심을 계속 유지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녔기 때문이다. 불은 한번 꺼지면 다시 불이 어렵다. 총학생회는 관심의 불씨를 지켜내야 한다.

최성훈 기자

■ 의화정

‘한국어’와 ‘조선어’

코로나 시대에 외국에 나가는 일은 이제 꿈같은 얘기가 되어 버렸다. 언제 다시 해외에서 학술 교류와 여행을 할 수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남북의 분위기도 역시 정체 상태다. 국내외 정세도 그리 밝지 않다. 소통의 장애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불과 2년 전에 남북 정상이 통역 없이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만나는 역사적 장면은 이제 불가능한 것인가? 당시 어느 외국 학자의 우문(愚問)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두 나라 사람들은 통역이 없이도 대화가 가능합니까?”

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물론이지요.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몇 가지 사회적 맥락이 다른 어휘 말고 남북의 언어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런데 남과 북의 언어 명칭은 각각 한국어이고 조선어이다. 한국어는 대한민국의 국어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어는? 북한말? 중국 연변말? 일제강점기의 말? 조선시대의 말?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 만큼 그 맥락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조선어’는 국어가 아니었다. 그저 조선 반도의 언어였다. 그런데 영어 표현은

단 하나다. 바로 Korean이다. South Korean도 North Korean이라고도 부르지 않는다. 한국어도, 조선어도 영어로는 모두 Korean이다. 남북이 Korean을 달리 부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선어’를 차별해서 취급한다면 그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한국어의 ‘아류’로 혹은 이데올로기를 덧칠하여 조선어를 폄하하는 것은 ‘언어 차별’이다. 둘은 약간 다른 지역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 영어, 영국 영어, 호주 영어, 인도 영어 등이 각 지역의 영어인 것과 같다. 물론 그 중에서 미국 영어나 영국 영어가 국제어가 되었다. 한국어도 조선어보다 더 국제적인 Korean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어가 낮은 위치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자리 잡으면 그건 낡은 정념(情念)이 된다. 우월주의에서 자유로울 때 세상은 더 넉넉하게 보인다.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지배하는 차별 의식은 이제 벗어 버리자. 한국어든 조선어든 다 아름다운 우리말이다. 이 남북의 언어로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한다. 여전히 간절하게, 다시 하나로 말이다.

이상혁(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교수

■ 낙산에 올라

레트로가 한창이다. 길을 가다 보면 레트로 콘셉트로 광고하는 상품 한 개쯤은 쉽게 볼 수 있다. 굳이 그런 상품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흔하게 입는 부츠컷, 와이드 팬츠 등을 보면 과거의 유행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어른제국의 역습’에서 짱구의 아버지 신형만은 현실이 힘들 때마다 꿈을 꾸며 행복했던 옛날 시절을 떠올린다. 젓바퀴처럼 굴러가는 생활에 지칠 때면 우리는 과거에 향수를 느낀다. 추억을 떠올리며 위안으로 삼는다.

과거를 찾는 사람의 심리는 곧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한다. 인터넷상에는 오래된 타자기나 게임기, 유리컵 같은 물품이

거대된다. 지금은 구하기 힘들다는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다. 과거라면 거래되지 않았을 물건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놀랄 만하다.

익숙한 동네 골목에는 하나둘씩 레트로한 매력의 카페가 들어섰다. 오래된 건물은 빈티지한 공간으로 재해석돼 인기를 얻고 있다. 카페에는 ‘힙함’과 ‘감성’을 느끼기 위한 2030세대와 옛 추억을 회상하기 위한 중장년층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레트로를 보며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8,90년대에 청년이었던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시간을 살았다. 그들의 삶을 담은 시간이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다.

조현미(사회과학 2)

레트로가 간직한 삶

■ 기자사령

면
부편집국장 최성훈(인문 4)

퇴
부장기자 김준수(사회과학 1)
정 기자 송정원(인문 2)

■ 동정란

이기항(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
이 교수는 지난 11월 24일과 25일 서강대학교 대메리홀에서 ‘이기항의 빛깔의 여운, 무늬의 역동’공연을 진행했다.

진재현(상상력교양대학 자율교양학부) 교수
진 교수는 지난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2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묻는 것보다 그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종이에 적힌 자료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욱 현실적이다. 나를 그로 바꾸기 위해 신문사 밖으로 향한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생생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비건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식만 먹는 사람을 말한다. 유제품과 벌꿀, 동물의 알 등 모든 동물성 음식을 거부한다. 동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옷이나 화장품도 사용하지 않는다. 동물성 원료는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비건이 채식주의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제약이 따르는지 그들의 어려움을 7일간 느껴봤다.

김선우 기자 rtdjrtf@naver.com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동물성 원료와 멀어진 7일

1일차

오후 1시 52분. 한성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온다. 신문사 출근 전,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핸드폰 화면을 켜다. 문득 친구가 추천해 줬던 샐러드 가게가 떠올라 곧바로 배달의 민족 어플에 '샐러드온'을 검색한다. 한성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샐러드온까지는 278m다. 메뉴판을 살펴보니 여러 종류의 샐러드가 보인다. 그릴드 목살보육, 훈제연어 샐러드, 라코타치즈 샐러드... 13가지 메뉴 중 먹을 수 있는 샐러드는 병아리콩 샐러드와 바질파스타 샐러드 뿐이다.

오후 2시. 샐러드 가게 카운터에 도착해 병아리콩 샐러드를 주문한다. 그 후, 동물성 재료가 샐러드에 사용됐는지 물어본다. "샐러드에 계란이 올라가는데 빼드릴까요?"라고 주인은 대답한다. 음식에 어떤 재료가 사용됐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면 비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뻔했다.

2일차

오후 2시 30분.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 위해 역 주변 카페 '커피빈'으로 향한다. 한성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커피빈까지는 99m다.

카페 안은 커피향과 빵 굽는 냄새로 가득하다. 카운터로 이동해 유리로 된 진열대를 살펴본다. 진열대는 계란, 햄, 치즈가 들어간 온갖 샌드위치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아래 바구니엔 쌀 블루베리 베이글과 뉴 플레인 베이글이 들어가 있다. 베이글을 집어 들어 성분표를 살펴보니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우유가 적혀있다. 베이글을 다시 제자리에 둔다. 결국 카운터 옆에 진열된 바나나 한 개만 구매한 후에 카페를 나온다.

오후 8시 20분. 신문사 퇴근 후,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간다. 책상에 앉으니 구석에 박혀 있는 지렁이 젤리가 보인다. 입맛을 다시며 젤리 봉지 뒷면을 읽어본다. 성분표를 읽기 시작하자 대략 3초 후에 젤리 봉지를 책상에 다시 올려둔다. 포도당시럽, 설탕, 사과농축액... 젤라틴(돼지)

3일차

비건이 일반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걱정 없이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비건 카페를 찾아본다. 인터넷에 한성대입구역 주변 비건 카페를 검색하니 대략 6개 정도가 나온다.



▲학식당 무인주문기 앞에서 비건 메뉴를 찾고 있는 모습

그중에서도 식사와 디저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맛이한' 카페에 방문하기로 한다.

오전 11시 45분. 카페에 도착한다. 곧바로 빵을 담은 쟁반과 집게를 챙겨 베이커리 진열대로 이동한다. 소프트바게트와 고구마 팔을 쟁반에 담는다. 진열대 위 팻말엔 'NO 글루텐, 계란, 유제품'이라고 적혀있다. 빵과 더불어 김밥과 매실차도 주문한다. 김밥에 들어간 밥은 유기농 발아현미로 지었으며, 재료로는 무, 깻잎, 두부, 당근, 비트가 들어갔다.

한성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카페까지는 2km다. 걸어서 가려면 2~30분이 소요된다. 그곳까지 가는 동안 대략 80개 정도의 음식점을 봤지만 그중에서 갈 수 있는 음식점은 3개 정도였다.

4일차

오전 9시 50분. 냉장고 문을 열어 무농약 클래식샐러드 한 팩을 꺼낸다. 클래식 샐러드에는 양배추, 적근대, 상추, 양상추, 베이비시금치가 들어가 있다. 비닐로 포장된 팩을 가위로 잘라 개봉한 후, 샐러드를 파란색 뜰체에 쏟아 붓는다. 채소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준비해둔 그릇에 담는다. 집에 있던 바나나도 잘라 그 위에 올린다.

드레싱은 간장, 설탕, 식초, 다진 마늘, 소금을 넣고 섞는다. 미리 세팅해둔 샐러드 위에 드레싱을 뿌리니 꽤나 먹음직스럽다.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에 번거롭다. 집에서 재료에 대한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

5일차

오후 2시 40분. 창의관 지하1층에 위치한 학식당 입구에 도착한다. 학식당 문을



▲비건 채식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을 쟁반에 담고 있다.

열고 들어가 곧바로 무인주문기 앞으로 간다. 학식당 메뉴는 총 33개다. 그중에서 유부우동, 김치우동, 공기밥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음식을 주문하기 전, 학교 홈페이지에 제공된 있는 식당 번호로 전화를 건다. "우동에 동물성 재료가 들어갔나요?"라는 말에 직원은 당황한다. 재료 성분을 확인 후에 문자로 보내준다고 한다. 대략 15분이 흘러,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도착한다. 그는 "우동육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제품입니다"라는 문자 내용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보냈다. 사진을 클릭해 보니 우유, 염장새우, 다량어육기스가 들어간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오직 공기밥 뿐이다.

6일차

오후 6시 30분. 커피를 마시기 위해 회룡역에 위치한 '메가커피'로 향한다. 카페에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무인기계 앞으로 간다. '포장하기' 버튼을 누르니 메뉴판이 화면에 나온다. 커피 메뉴는 총 17개다. 동물성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고 싶지만 무인기계 화면, 카운터 위 메뉴판, 카페 벽면 등 어디에도 성분표가 보이지 않는다.

직원에게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커피 메뉴를 물어본다. "아메리카노만 우유가 들어가지 않아요"라고 직원이 말한다. 카페에서 마실 수 있는 커피는 오직 아메리카노뿐이다. 화면에 보이는 'h 아메리카노'를 클릭한 후, '1,500원 결제하기' 버튼을 누른다.

7일차

오후 1시 53분.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진행되는 비건 페스타에 도착한다. 사전 예약줄에서 참가비를 결제한 후,



▲비건 채식 베이커리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직접 만든 샐러드다.

비건 페스타 출입 팔찌를 건네받는다. 비건 페스타에는 비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참여해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는 총 51개다. 유기농 비건 버터, 비건 아이스크림, 비건 프라이드콩치킨, 비건 화장품 등 여러 제품이 있다.

비건 페스타에서 제공한 운영부스 배치도를 이용해 비건 화장품 기업인 허블룸 부스로 향한다. 허블룸 직원이 제품에 대해 설명한다. "동물 보호 단체인 페타(PETA)의 기준에 따라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동물 실험을 배제하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비건은 동물성 원료로 만든 옷이나 화장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비건 페스타에 진열된 상품을 살펴보니, 가방과 카드지갑에도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지 않았다. 페스타 행사장 벽면엔 '고통없는 패션이 더 아름답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메뉴판이 있어도, 선택하지 못했다”

